

생애진로분기점별 진로정체성 혼돈에 따른 진로전략 분석

손민정*, 조인수, 최정은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Analysis of Career Strategy according to Career Identity Confusion at the Each Life Career Branching Point

Min-Jeong Son*, In-Soo Cho, Jeong-Eun Choi

Dept. of vocation, Kyu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요약 이 연구는 진로전환의 기점을 분기점별로 확인하고, 진로정체성 혼돈에 따른 진로전략을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학령기 교육의 수직적 전환단계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졸업 전후의 시기별로 각 3명씩을 선정하였으며, 조직규모별 종사경험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30세 전후, 40세 전후, 60세 전후 참여자를 각각 3명씩 선정하였다. 총 18명의 면담내용을 주제 분석한 결과, 첫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졸업 후 취업하기 전까지, 직장생활 3년 차 이내, 40대 초중반, 60세, 80세를 생애진로분기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애진로분기점별 외부적 상황은 부모, 교사, 상사, 동료, 또래 등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을 받거나 그 외에 교육 및 훈련, 일 관련 경험, 취업·실업, 직무전환 등 환경적 요인, 진로사건에 관한 내용이었다. 셋째, 생애진로분기점에서의 정서적 상황에서는 분기점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생애진로분기점을 경험할 때마다 부정적 정서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생애진로분기점마다 진로정체성에 대한 혼돈을 보였다. 다섯째, 생애진로분기점에서의 진로 전략은 접근 전략으로 진로 범위의 확대, 멘토링의 활용, 직무 충실과 몰입, 관련 교육 및 훈련 등과 같이 진로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전략이 있었고, 회피와 관련한 전략은 진로 제한에 따른 타협, 당면과제 회피 및 현실도피, 사회 규범적 가치에 편승, 진로와 관련 없는 성과에 주력하는 등과 같이 궁극적으로 진로목표 달성과는 연관성 없는 행동을 지향하는 내용 전략으로 범주화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confirmed the life career branching points, and studied qualitatively the career strategy and career identity at that time.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three students from third graders of middle school, three ones from third graders of high school, and three before and after college graduation, which correspond to the vertical transition stage of school education. Three participants were selected before and after 30 years of age, three before and after 40 years of age, and three before and after 60 years of age. Subject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18 interviews, showed that the life career branching point appeared in middle school grade 3, high school grade 3, until employment after graduation, within 3 years after entering their first job, early 40 years, 60 years old, and 80 years old. Second, external situations were due to the influence of important others, or external stimuli, environment, and career events. Third, negative emotions were repeated for each life career branching point. Fourth, as a result of the interview, the career identity confusion was repeated in every life career branching point. Fifth, the career strategy at the life career branching point was categorized as an approach strategy and avoidance strategy.

Keywords : Life Career Branching Point, Career Strategy, Career Identity Confusion, face, career myth, career anxiety, vocational counseling

This manuscript is a condensed, amendment, or supplement form of the Son Min-Jeong's doctor's thesis form Kyunggi Univ.

*Corresponding Author : Min-Jeong-Son(Kyunggi Univ.)

Tel: +82-10-5264-1975 email: tahiti50@hanmail.net

Received March 16, 2018

Revised (1st March 27, 2018, 2nd April 11, 2018, 3rd April 16, 2018)

Accepted June 1, 2018

Published June 30, 2018

1. 서론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학 분야의 발전은 인간의 기대수명을 증가시켜 100세 시대에 대한 예언을 가시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 혁명의 예고와 함께 ‘알파에이지(alpha-age)’ 개념을 주장하며, 120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KBS, 2016)[1]. 실제로 1995년~2000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이 74.9세였던 것이 2015~2020년 82.8세로 20년 동안 약 8년간 연장되었다(통계청, 2016)[2].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치인 79.5세보다도 3.3세나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연장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고령 인구(65세 이상 기준)의 비율이 13.8%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3.6% 증가했는데, 이미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7)[3].

이러한 기대수명의 연장은 생애주기(life cycle)의 변화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은퇴는 평균 71.8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년퇴직 이후로도 10년 이상 진로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 물러나는 것을 은퇴라고 인식하던 사람들의 관점도 달라지고 있다. 은퇴를 점진적 은퇴, ‘단계적 은퇴’, ‘부분 은퇴’ 등으로 구분하여 생애에 있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으로 개념화한 논의도 등장하였다(장지연 외, 2003)[4].

반면 지금까지 직업상담에 있어 대표적 접근법으로 채택했던 직업선택에 관한 모형들은 청소년기와 초기성인기에 주로 진로 고민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개인이 가진 특성과 직업과 관련한 요인을 분석하여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Parsons, 1909; Holland, 1985; Dawis & Lofquist, 1984)[5, 12, 13]. 그러나 직업선택이 생애사건 경험 중 어느 한 시점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진로와 직업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며 성인의 생애주기모형을 제시한 Levinson은 성인의 생애 단계를 4계절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성인 전기(17~22세)를 봄, 성인 초기(22~40세)를 여름, 성인 중기(40~60세)를 가을, 성인 말기(60세 이후)를 겨울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특정 시기 강

조되는 유형을 생애 구조(life structure)라고 개념화하면서 이는 전 생애에 걸쳐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각 단계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고통 역할을 하는 시기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 기간에 사람은 자신과 삶을 평가하고 새롭게 생애 구조를 계획하거나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Levinson, 1978)[6].

Levinson의 연구는 직업상담의 요구를 나타내는 대상들이 대체로 특정한 연령대의 몇 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도 드러났다. 김병숙(2012)은 5년간의 임상을 증거로 한 「은퇴 후 8만 시간」 저서에서 직업상담의 요구가 집중되는 시기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졸업 전후, 직장생활 3년 차, 40세 전후, 60세 전후, 80세 전후로 분류하고, 이 일곱 번의 기점을 인생의 진로분기점이라 설명하였다(김병숙, 2012)[7].

이와 같이 진로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중대 결정 시기를 생애진로분기점이라 본다면, 더욱 긴 생애주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애진로분기점을 몇 번 겪게 될지에 대한 의문은 진로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분기점에 대한 연구는 노숙인의 궤도이탈 변곡점에 대한 연구(이상직, 2013)[8] 또는 탈북 여성의 생애 사건과 사회적 갈등 분기점에 대한 연구(신난희, 2015)[9] 등 특수한 상황의 대상에 대한 생애사 분석에 그치고 있거나, 심리적 분리 개념화 과정에서 나타난 발달상의 분기점(곽민정, 2005)[10]에 대한 연구만 진행되고 있으며, 진로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미한 단계에 있다. 진로 관점에서는 직업수행의 긍정적 특성 및 성장 유형, 진로 변곡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허유선, 2013)[11]가 거의 유일하다.

이에 이 연구는 생애주기에서 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진로분기점별로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고민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고민 결과 세우는 전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생애진로분기점별 직업상담 논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는 생애진로분기점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며, 분기점별로 진로 선택에 있어 어떠한 갈등적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여 대처하는지 등 연구 참여자의 행동을 밝힘으로써 직업상담의 논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긴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복하는 진로 고민의 기점마다 자기와 진로에 대한 목표

를 명확히 하고, 그들이 원하는 진로를 추구해 나아가는 것을 도우며, 생애진로발달의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그 의미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생애진로분기점

2.1.1 발달적 관점에서 생애진로분기점

Parsons는 1909년 발간한 저서 ‘직업선택(choosing a vocation)’을 통하여 최초로 직업지도 모형을 제시한 이후 이어진 직업상담의 고전 이론들은 직업선택이란 일회적 결정이며, 인생의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취하였다(Parsons, 1909)[4]. 이러한 관점은 Holland의 성격이론, Dawis와 Lofquist의 일 적응이론으로 이어져 왔다(Holland, 1985; Dawis와 Lofquist, 1984)[12~13]. 그러나 진로발달이론가들에 의해 진로선택은 성장 과정에서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일회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인의 생애 역할·장면·사건은 각 발달 단계에서 상호작용하면서 통합되는 것이며 개인의 자기 개념 발달과 연결된 일련의 과정으로 여겨지면서 현재는 생애진로발달의 관점이 우세하게 나타났다(Gysbers 외, 1998)[14].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진로를 서로 구분되는 몇 개의 발달단계로 구분하는 처음의 시도는 Ginzberg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진로발달 단계를 단계별 과업으로 제시하였는데 환상기(fantasy period : 11세 전), 잠정기(tentative period : 11~17세), 현실기(realistic period : 18세~성인 초기)로 구분하였다(Ginzberg, 1951)[15].

Ginzberg의 이론을 발전시켜 Super는 아동기부터 청소년, 성인,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진로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더욱 폭넓은 관점으로 진로발달의 단계를 제시하였다(Super, 1990)[16]. 또한, 그는 생애진로발달은 직업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의 세계와 관련하여 더욱 다양한 삶의 영역과 역할들을 포괄하며 발달 단계마다 각각의 시기에 수행해야 할 독특한 현상과 과업이 있다고 보았다(Super, 1990)[16]. 그는 Buehler의 발달단계 구분을 따라 성장기(출생~14세), 탐색기(15~24세), 확립기(25~44세), 유지기(45~65세), 쇠퇴기(65세 이상)로 나누었으며, 그 단계의 주요 발달 과업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하여 각 단계의 명칭을 개념화하였다(Super, 1990; Buehler, 1933, 1935)[16-18]. 또한, Super는 다섯 단계로 구분되는 발달 순서를 대순환(maxicycle)이라고 하고, 생애 주기에서 대순환 내 각각의 단계에서 성장-탐색-확립-유지-쇠퇴의 과정을 밟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를 소순환(minicycle)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은 평생 여러 시점에서 성장-탐색-확립-유지-쇠퇴의 재순환을 경험한다고 하였다(이희영, 2016)[19].

개인은 어떤 연령과 환경에 처하는 생애역할, 생애장면, 생애사건 등을 경험한다고 강조하며, 생애진로발달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즉, 다양한 생애역할(부모, 배우자 등), 다양한 생애장면(가정, 학교, 직장과 같은 장면들 등), 다양한 생애사건(결혼, 은퇴, 취업, 이혼 등) 등이 일생 동안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임을 설명하였다(전현영, 2013; Gysbers 외, 1998)[14, 20].

2.1.2 전환적 관점에서의 생애진로분기점

진로(career)는 일생을 사는 동안 행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 보편적인 생활 형태이다. 또한, 진로는 삶을 영위하는 동안 경험하는 직업, 직무, 직위 등의 연속이며, 사람의 생애 속에 수행되는 직업과 연결된 일, 취미 활동, 가정생활 등을 의미한다. 즉 진로란 일생 동안 한 개인이 참여하는 일과 여가활동의 연속 과정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생활양식을 뜻한다. 한편 진로는 직업 활동을 하기 전과 직업을 갖고 적응하는 것, 나아가 은퇴한 후의 생활 전체를 포괄하기도 하며, 학생, 피고용인, 학습자, 시민, 연금 혜택자 등과 같은 역할을 의미한다(Super 외, 1957; Super, 1976, 1980)[16, 21]. 그러므로 진로는 한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전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과 관련한 활동을 의미하며 일이 곧 진로이다.

Schlossberg는 대인관계, 생활습관, 생애역할 등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 또는 활성화되지 않은 사건을 전환으로 정의한다. 즉 전환은 생애 동안 경험하는 사건이나 비활성화 사건을 통해 자신과 세계관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거나 변화가 요구될 때 발생한다. 비활성화 사건이란 승진 실패, 꿈의 미성취 등과 같은 예상된 삶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Schlossberg, 1981)[22]. 장계영·김봉환(2009)[23]은 변화와 전환을 구분하는데 변화는 상황의 이동을 뜻하고, 전환은 지금까지 사용해온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취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전환과정이 빨리 진

행되어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다. 같은 위기상황에서 사람마다 대처하고 적응하는 데는 개인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Cranton과 Dirkx는 Jung의 정신분석적 관점을 접목하면 ‘전환’을 ‘개성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개성화란 인간을 집합체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점차 분리해나가는 평생의 여정이다. 결국, 전환적 생애 사건은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Cranton & Dirkx, 2006) [24].

각 개인의 대응방식에 따라서 전환과정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것과 달리 진로를 새롭게 수정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Bejian & Salomone, 1995)[25].

진로전환의 정의는 관점에 따라 직업전환, 경력전환, 진로수정, 노동이동, 직장이동 등 혼재되어 있으나 학령기의 진로전환은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의 교육의 수직적 전환단계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이동, 퇴직까지 일련의 직업 생애 사 과정을 모두 지칭한다(전현영, 2013)[20].

전환에 대한 이론들은 전환의 유형을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것으로 나누거나 개인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으로 구분한다. Hopson(1977)은 다른 연구자와 함께 전환의 결정 요인을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누었다. 내적 동기에 의한 전환은 개인에 초점을 두어 개인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는 것이고, 외적 동기에 의한 전환은 경제 상황, 근로조건, 조직 내 문화 등의 변화나 실직 등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인한 전환을 의미한다(Hopson 외, 1977)[26]. 이때 외적 동기 중에서 구조적 힘에 의한 실직은 비자발적 전환의 특성을 갖는다. 그 외 진로전환 유형을 계획된 전환과 비계획적 전환으로 분류하였다(Gysbers 외, 1998)[14].

한편, 개인이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예측된 전환, 예측하지 못한 전환, 비활성화 전환으로 분류하였다(Schlossberg, 1981, 1984)[27-28]. 예측된 전환은 졸업과 결혼, 부모 퇴가와 첫 직장 입사, 직장이동과 은퇴 등 삶에서 준비하고 예측되는 사건들에 따른 변화를 뜻하고 그 기준은 획득과 상실에 그 역할을 한다. 예측하지 못한 전환은 중요한 수술, 교통사고, 질병, 파격 승진, 사업장 폐쇄, 이혼, 자녀의 죽음, 자연재해 등의

사건으로 인한 전환을 의미하며 비활성화 전환은 전환이 기대되는 현실에서 스스로 개선할 방법을 찾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비혼 상태, 승진실패, 불임, 은퇴를 방해하는 사건 등으로 인해 전환이 발생하지 못한 상황이 그 예이다(Anderson 외, 2012)[29].

2.2 생애진로분기점과 진로정체성

진로정체성(career identity)은 자기정체성의 의미를 진로의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한 개념이며(Erikson, 1968)[30], 자기정체성(self identity)이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함축적, 총체적, 일관적인 믿음과 느낌을 말한다(Marcia, 1980)[31].

Erikson(1968)은 정체성이란 개인의 자아가 그의 인격체제 즉 원욕, 자아, 초자아를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동시에 자신의 자아통합(ego synthesis) 방식이 자기가 타인에게 주는 개인적 의미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견지해 나가는데 유효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Erikson, 1968)[30]. 또한, 정체성을 개인의 영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 불변성이고 또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conscious sense of individual identity)이며,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연속성과 단일성에 사로잡히는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정체성의 개념을 단순한 이론적 구성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고 현상적인 주관적 의식경험을 강조하였고 자기개념의 통합성, 안정감, 명확성 등 관련된 감정들을 자기정체성으로 보았다(Erikson, 1968)[30].

Tiedman과 O'Hara(1963)는 생애발달의 관점에서 진로정체성이 형성돼 가는 과정을 진로발달이라고 보았다(Tiedman & O'Hara, 1963)[32]. 개인이 자신이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는가를 진로정체성이라 하였다. 개인의 정체성 형성은 다양한 내적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직업선택과 진로발달의 목표를 일과 관련된 자기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이라고 주장하였다. 직업적인 자기정체성은 개인이 가진 목표, 흥미, 재능 등에 대한 뚜렷하고 안착된 인식을 뜻한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환경에서 어떤 처지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적합한 알맞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확고한 믿음을 주며 비교적 만족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Holland, 1980)[33].

이러한 정체성 확립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

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청소년기가 사회적 요구와 생물학적 성숙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며, 이에 따른 역동의 결과로서 정체감 형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Erikson, 1968)[30].

Erikson(1968)[30]의 이론을 경험적 연구로 적용한, 정체성을 탐색과 개입이라는 차원을 두 축으로 하여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4가지 상태를 제시하였다(Marcia, 1980)[31]. 탐색이란 현재 상태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욕구, 역할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익숙한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대안을 찾는 가능성을 말한다. 개입은 주어진 역할과 해야 할 일에 신념을 가지고, 특정한 가치를 중요시하고, 열정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이에 기반을 두어 정체성이란 탐색 이후의 선택 및 정체성 유예상태에서 선택을 위한 ‘과정’으로 보았으며, 정체성 확립이 아니더라도 각 정체성 상태는 나름대로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Meeus, 1996)[34]. 진로 정체성은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 경험의 단순한 총합으로 이루어진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을 의미 있고 유용하게 만드는 내적 구조이다(Vondracek, 1992; Meijers, 1998)[35-36]. 진로정체성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역량, 동기, 흥미 등과 의식적으로 수용 가능한 진로 역할을 연계한다. 또한, 진로정체성은 실제 경험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을 이끄는 구조로써 유동적인 특성이 있다(Meijers, 1998)[36].

따라서 진로정체성은 상호적, 지속적, 유동적, 역동적인 구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이전 경험에서 역기능적인 심리적 가점들이 학습되었다 하더라도 의미부여와 실제 수행을 통해 새로운 역할과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면, 새로운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과 동기를 갖게 된다(Meijers, 1998)[36].

2.3 진로전략

Anderson과 Goodman 그리고 Schlossberg(2012)는 전환상황에서의 적응성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전환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전환모형은 중요한 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전환의 개념 정의와 전환과정으로 살펴보는 전환 접근, 둘째, 대처자원 탐색, 셋째, 개인의 자원을 강화하고 충전하는 과정 등이다. 전환모형에서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정의

하며, 전환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4개의 요소에 대해 말한다(Anderson, Goodman, Schlossberg, 2012)[29].

자기요인은 개인이 가진 심리적 특징으로 개인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삶에 대한 적응성, 자기 효능감, 의미부여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 세계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즉, 자기요인은 전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낙관적인지, 유연한지, 불확실한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적 강점요소들이다. 상황요인은 전환상황에 대한 그 자신의 통제감, 사건이 일어난 시기 혹은 전환상황 그 자체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 한편 지지요인은 진로전환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즉, 가족이나 동료, 사회적 기관 등으로부터 관심과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을 뜻한다. 전략요인은 협상하거나 조언을 구하기 등과 같이 개인이 전환 중에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대처기술들을 의미한다(Anderson, Goodman, Schlossberg, 2012)[29].

생애진로분기점에 대한 맥락적 접근에서 4S 체계는 분기점의 양상과 다양한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 개념적 모형이다. 분기점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분기점을 맞은 계기는 무엇인지, 당시 타인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했는지, 무슨 전략으로 상황을 대처했는지 등에 대해 탐색하는 틀을 제시할 수 있다.

진로전략에 관한 또 다른 근거는 조절초점이론에 의한다(Higgins, 1997)[37]. 그는 자기개념의 차이에 따라 두 가지 자기조절체계,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향상초점을 가진 개인은 바람직한 결과에 다가가기 위해 긍정적인 결과의 획득 또는 불획득 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근본적으로 성취와 성장에 초점을 두고, 이상적 자기를 향한 접근성을 높인다. 반면 예방초점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당위적 자기에 대한 스스로 지침을 내재화하여, 책임수행과 안전에 초점을 두며 부정적 결과의 부재와 존재에 중요한 의미를 둔다. 개인들은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개인에게 우세한 조절초점을 사용하는데, 만성적으로 향상초점이 우세한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접근전략을 사용하고, 예방초점이 우세한 사람은 목표와 어긋나는 상태를 피하기 위한 회피전략을 사용한다고 보았다(Higgins, 1997)[37].

2.4 선행연구 분석

2.4.1 생애진로분기점

국내의 연구에서는 생애단계와 관련된 용어를 인생단계, 생애주기, 생애단계, 생애과정 등을 사용하였다. 선행된 생애단계 연구들은 전 생애를 연령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생애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의 연계를 생애주기모형으로 제시하였다(이지원, 2014; 안명옥, 2014)[38-39].

분야별 연구로는 길어진 평균수명으로 인한 생애주기의 변화와 생애역할에 대한 직업학적 연구(김병숙, 2007; 김충기, 1983)[40-41]가 있다. 생애단계별 삶의 만족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는 1994~2013년도까지 한국인의 삶의 만족에 대해 연구한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을 기반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송보라 외, 2014)[42].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이 한국인의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생애단계별로 다른 자기효능감 요인의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생애진로분기점과 관련한 연구는 생애주기에 관한 관점과 생애단계 또는 진로전환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체로 중장년 즉, 베이비붐 세대의 진로전환, 진로가 단절된 여성의 진로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나형은 베이비붐 세대의 진로전환과 관련하여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중·고령층의 진로전환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전환의 동기와 진로전환에 임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진로전환의 과정에서 인적네트워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전의 직업경험이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새로운 직업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김나형, 2012)[43]. 그 외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구직행동과의 관계 연구(김나래, 2015)[44]가 있으며, 질적 연구 방법으로 8인 8색 이야기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 진로전환의 경험의 주제, 의미, 진로전환, 진로타협 등에 대해 연구했다(전현영, 2013)[20]. 직업선수로 진로전환 과정의 심리적 체형에서 운동선수의 진로전환(양승우, 2015)[45], 제대군인의 가족탄력성과 자기결정성이 진로전환에 미치는 영향(최동숙, 2014)[46], 재직자의 직업전환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직업적응과 직업전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임금희, 2015)[47].

한편, 주성희는 진로단절 여성의 생애진로전환 경험 분석을 하였고(주성희, 2016)[48], 송성화는 고학력 진로단절 여성의 진로전환 및 진로적응에 관한 성공요인을

질적 연구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송성화, (2016)[49]. 황수경, 미미영은 진로단절여성의 진로전환 방해요인을 개인·가족 요인과 사회·구조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황수경, 2003;,, 이미영,2012),[50-51], 장서영은 고학력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진로단절위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개념도 연구를 수행하였다(장서영, 2008)[52].

이와 같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정작 생애진로분기점을 포착하고 설명하는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의 틀은 부족하다. 다만 특수한 대상의 생애사에 관한 연구는 생애의 변곡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는 노숙인의 제도이탈 변곡점에 대한 연구(이상직, 2013)[8], 탈북 여성의 생애사건과 사회적 갈등 분기점에 대한 연구(신난희, 2015)[9] 등이다. 그밖에는 심리적 분리개념화 과정에서 나타난 발달상의 분기점에 대한 연구(곽민정, 2005)[10]가 있었으며, 진로와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직업 수행의 긍정적 특성 및 성장 유형, 진로 변곡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생애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분기점별 상황요인과 내적요인을 충분히 다루지는 못하였다(허유선, 2013)[11].

따라서 이 연구는 진로의 관점에서 전 생애의 단계에 걸쳐 나타나는 생애진로분기점을 확인하고, 생애진로분기점이 반복되는지에 대해 그 시기와 상황을 분석하는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2.4.2 진로정체성

Waterman(1982)[53]은 진로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에 자기존재에 대한 이해, 생애의 목표, 가치 및 신념, 자기수용의 범위 등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그 의미는 진로와 관련하여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한희원·문경숙, 2014). 또한, 진로정체성이 확립되면 진로 의사결정에 자신감이 생겨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김선환, 2007)[54-55].

한편 진로정체성 확립의 과업은 주로 청소년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조은주(2001)[56]는 청소년기에 진로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진로의식이 불명확하고 불안정하여 방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진로정체성은 청소년기에 확립되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통해 미래를 결정하며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

도 있었다(이상인, 2001)[57].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이 진로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었다. 다수의 연구자는 진로정체성 확립을 위해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기개념(서은선·정경아, 2015)[58], 진로 목표 설정(Halamandaris & Power, 1997)[59]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Galles와 Lenz(2013)[60]는 진로정체성이 확립되면 명확하고 확고한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과 재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진로정체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이경선, 2009; 한주원, 2013)[61-62]고 보고되었다. 진로정체성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혜란, 2013)[63]. 진로 목표를 계획하는 학습자는 심리적 독립심도 강하고(장지선, 2003)[64],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선, 2003; Holland & Holland, 1997)[65-66].

진로정체성은 진로발달(Melgosa, 1987)[67]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진로의식 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이지혜, 2013)[68]. 진로정체성이 다양한 진로를 경험하고 일관된 가치관을 가지고 안정감을 유지하는 성취단계에 있으면 진로태도 성숙도가 높다고 밝혔다(서유란·이상희, 2012)[69].

진로발달 단계와 관련한 진로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은 중학생의 자기정체감과 진로정체성에 관한 연구(김우리 외, 2014)[70], 자기정체감의 하위요인인 미래 확산성과 고등학생의 진로정체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이상인, 2001)[57]. 또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기정체감이 진로결정 문제와 진로준비 행동에 상관이 있으며, 자기정체감이 높을수록(강영숙, 2005)[71] 진로준비 행동이 높아졌음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진로정체성과 진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기정체감이 조기 완료된 집단이 직업을 탐색하는 것보다 주어진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적으로 노력하므로 진로준비 행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김영화·김계현, 2011)[72]. 진로정체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연구(양진희, 2007; 김미주, 2011)[73-74]에서는 자기정체감과 진로정체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정체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주장을 잘하기

때문에 목표 지향적이며, 자신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그림을 소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Holland & Holland, 1977) [66].

진로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 장애(이현림 외, 2008)[75], 진로불안(유정이 외, 2003)[76] 등이 있었으며 진로장벽, 불안과 진로결정 장애가 높을수록 진로정체성이 낮았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직업에 대한 정보와 자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진로정체성을 구체화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림 외, 2008)[75].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진로정체성이 분명하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진로정체성 분명하지 않아 진로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게 된다(이동혁 외, 2012)[77]. 진로정체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진로목표의 수준이 모두 낮으며(공윤정, 2006) [78], 이는 진로 미결정의 원인이 된다(Savickas, 1985)[79].

이와 같이 진로정체성이 생애에 걸친 진로발달과 진로행동, 진로의사결정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이후의 진로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생애진로분기점에서의 진로정체성 혼돈을 탐색하고 그러한 진로정체성 혼돈이 성인기 이후의 삶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2.4.3 진로전략

진로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는 진로전략의 의미와는 다른 취업전략, 학습전략, 구직전략 등의 연구가 있고, 진로전략 관련 연구는 거의 없다.

대학생 관련 연구에서는 취업전략의 하위요인을 구직계획, 구직활동, 능력배양, 자원 활용 등으로 구성하였다(김효정, 2014)[80]. 이러한 요인으로 살펴보면, 취업전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정선은 취업을 위한 계획단계부터 취업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동안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행위를 취업전략이라 정의하였다(이정선, 2012)[81].

학습전략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대학생이 학업 성취도가 낮은 대학생에 비해 동기전략, 인지전략, 자원관리 전략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전명남, 2003; 양명희, 2000)[82-83]. 성취감을

자주 경험한 학습자일수록 학습에서도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나며, 다른 학습자에 비해 높은 자기효능감을 유지하고, 인지전략의 하위요인인 정교화와 조직화 전략을 자주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양명희, 2000)[83]. 한편 학습자의 경우 학업 과정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절차나 방법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을 때 학업 성취 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었다(정미경, 2003, Zimmerman, Schunk, 1989)[84-85].

따라서 성공적인 학습수행은 진로전략과 성취경험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습전략과의 관계도 이와 같을 수 있다.

자기주도 학습전략의 연구는 문제해결능력(심미정·오효숙, 2012)[87], 학습몰입(김경순, 2014)[88]과 상관이 있으며, 학습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은, 2011) [89]. 자신의 진로를 적합하게 인식한 학습자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태도가 높았으며(박경빈·권혁민, 2011)[90], 학습의 자기주도성과 진로는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문승태 외, 2012)[91]. 자기주도성이 높은 학습자는 진로준비와 탐색에 대한 행동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주연, 2013; 장은영, 2012)[92-93]. 또한, 진로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김수리·이재창, 2007)[94].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갖춘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학습 결과물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며(장은영, 2012)[93],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진로결정 수준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최성용, 2007)[95].

진로의사결정 모형을 적용한 연구에서 자기성장 주도성이 진로탐색 행동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은, 2011) [89]. 자기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려는 성향이 강할수록 직업세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해를 위한 행동도 적극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Robitschek·Cook, 1999; Harren, 1979)[96-97].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의 심리적 성향에 영향을 받는 것은 진로전략과 같은 진로행동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생애진로분기점에서 갖게 되는 불안, 우울,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 상황 또는 진로 정체성의 혼돈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개인이 선택하는 진로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이 연구는 Miles와 Huberman, 1994)[98]가 제안한 방법으로 유목적적 편의표본표집(purposed sampling)을 채택하였다.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participants

no.	Pers on	Life branch ing point	Age	Gend er	Affiliation	Career
1	A	3 rd of middle school	16	F	A middle school	-
2	B		16	F	B middle school	-
3	C		16	F	C middle school	-
4	D	3 rd of high school	19	M	A high school	-
5	E		19	M	B high school	-
6	F		19	F	meister high school	-
7	G	4 th of university	26	M	A university department of Japanese literature	2month
8	H		24	F	A university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
9	I		27	M	C university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6month
10	J	about 30 years old	28	M	small business company staff	1year
11	K		33	F	youth counselor	2year 6month
12	L		28	M	committee employee	3year
13	M	about 40 years old	41	M	major company middle manager	17year 4month
14	N		40	F	official	17year 2month
15	O		42	M	small business company mechanical designer	15year 8month
16	P	about 60 years old	63	M	securities company Executives/ head hunter	25year/ 10year
17	Q		63	M	branch manager/financial counselor	32year/ 3year
18	R		61	M	official/-	40year/ -

연구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조건을 갖춘 참여자 선정과 연구에 가장 많은 자료 제공이 목적이다. 학령기 교육의 수직적 전환 단계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졸업 전후의 시기별로 각 3명씩을 선정하였다. 직업상담 전문가를 통해 총 15명을 추천받아 이

중 참여 의사를 밝힌 11명 가운데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조직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 60세 전후의 참여자 3명과 40세 전후 3명, 30세 전후 3명을 각각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 참여자는 총 18명을 최종 표집으로 조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면담 진행 시 “생애진로분기점이 있었는가?”, ‘그때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분기점에서 노력한 것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내용 이외에도 연구자의 개입이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였고, 참여자의 자기개방과 협조적 태도, 특성과 반응 등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질문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였다. 본 면담에 사용한 반구조화 질문지의 구성은 Table 2, 3과 같다.

Table 2. Questions about considering career path and career strategy at the life career branching point(Common questions from participants)

subject of questions	list of questions
Orientation & Basic data collection	■ Explain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limited use of the research materials, the right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and obtain the consent to participate in the interview and to record the interview ■ Collect data on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age, occupation, career, education, and family relationship
The life career branching point and considering career path	■ Did you considering your career path? ■ If you were considering your career path, when was it? - At that time, do you have an opportunity to consider your career path? - At that time, what made you so considered? ■ Now, do you consider your career path? - What is your biggest concern? ■ In your entire life, what period of your life point do you reach?
At the life career branching point, personal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career path? ■ What do you consider the most when you worry about your career path? ■ Do you have your ideal self-identity? - If you have it, what is it like? Is it possible? ■ Do you have the image of yourself that you want to be? - If you have it,, what is it, and why?
At the life career branching point, career strategy	■ Did you have an opportunity to decide and develop your career path? ■ To pass the time of considering career path what did you do? - While you are trying, how do you feel? - At the moment, what did you do? ■ Do you have a career strategy for the future? ■ To achieve the planned career strategy, how will you try?

Table 3. Questions about decision making about the career path and career strategy at the life career branching point (additional questions at each point)

Ages	Question
3 rd grade of middleschool	■ How much influence do parents (an important personal have on your career path decisions?
3 rd grade of highschool	■ Besides applying for the university, do you have any preparation or planning for your career path? -If you have it, what is it?
4 th grade of university	■ Besides getting a job, do you have any career strategy?
about 30 years old	■ What is least satisfactory in your job? -What strategy do you take to address this?
about 40 years old	■ What is the result of your career change considerations? - If you change your career, what is the reason?
about 60 years old	■ What is your assessment of the career strategy?

3.2 분석방법

본 면담은 3개월의 기간에 걸쳐 총 18명을 진행하였다. 1인당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시간~1시간 30분이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A4용지로 411페이지(평균 22.8쪽) 분량이며, 수집된 자료는 면담을 시작한 2016년 12월~2017년 3월까지 4개월간 지속해서 이를 전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반복적인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줄 단위 분석방법(line by line analysis)[110]을 적용하였다. 이 단계는 최소 10~20회 이상 반복하여 의미 있는 서술 내용을 도출하였으며,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논점을 찾아 선별한 문장을 요약하고 주제를 도출하는 단계까지의 과정을 지속해서 반복하였다.

4. 연구결과

4.1 생애진로분기점

이 연구는 생애진로분기점에 있는 사람들을 담화법을 통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진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생애진로분기점에서 진로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있다는 관점에서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18명의 연구 참여자가 생애진로분기점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단어와 문장을 추출하여 의미 있는 주제를 분석한 결과 생애진로분기점에 대한 주제어는 총

129회로 나타났고, 이 중 중학교시기에 대한 주제진술이 22회, 고등학교 시기가 19회, 대학교~취업 전까지가 27회, 직장 3년 차 이내의 시기 16회, 40세 전후에 대한 주제진술이 19회, 60세 전후가 16회로 분석되었다.

생애진로분기점에 대한 인식은 중학교 때가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13명은 중학교 시기의 생애진로분기점을 진술하였고, 이들 중 12명의 참여자는 생애진로분기점을 중학교 3학년으로 보았으며(참여자 A, B, C, D, E, F, G, H, J, K, L, N, Q) 한 명은 생애진로분기점을 중학교 2학년이라 진술하였다(참여자 E).

두 번째 분기점에 대한 진술은 13명의 참여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 진술하였고(참여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그중 두 명의 참여자는 고1, 고3 등 두 차례(참여자 E), 고2, 고3, 재수 기간 등 세 차례(참여자 G)를 생애진로분기점으로 보고하였다.

세 번째 생애진로분기점은 참여자 10명의 진술에 따라 대학 졸업을 앞둔 시기부터 졸업 후 취업 전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G, H, I, J, K, L, M, N, O, P). 이들 중 4명의 참여자는 대1, 대2, 군 제대 직후까지 포함해 비슷한 시기에 여러 차례 분기점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참여자 G, H, K, L).

네 번째 생애진로분기점은 직장생활 3년 차 이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참여자 J, K, L, N, O, Q)이었고, 6명의 참여자 중에는 취업 후 3개월 이내, 직장 1년 차, 직장 3년 차 등 생애진로분기점을 세 차례 경험한 것으로 진술하였고(참여자 L), 자신의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을 통해 이 시기의 생애진로분기점을 진술하였다(참여자 M).

다섯 번째 생애진로분기점은 6명의 참여자 진술을 통해 40대 초·중반인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M, N, O, Q, P, R). 베이비붐 세대인 참여자 두 명은 40대 초·중반에서의 생애진로분기점 외에도 50세 초반에 분기점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했다(참여자 P, Q).

여섯 번째 생애진로분기점은 세 명의 참여자 진술에 의해 60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참여자 P, Q, R). 이 중 두 명은 65세와 70세를 생애진로분기점으로 보았고(참여자 P, Q), 예외적으로 40세 전후인 참여자 M은 향후 예상되는 생애진로분기점에 대해 70세와 100세로 전망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40세 이상인 6명은 생애진로분기점이 2회~6회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진술하였고, 진

생애에 걸쳐 평균 5회 이상 생애진로분기점을 경험하였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4.2 생애진로분기점별 정서적·외부적 상황

4.2.1 생애진로분기점 정서적 상황

생애진로분기점의 시기에 중요한 타인의 영향, 환경적 요인, 진로사건 등과 같은 외부적 상황은 분기점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발달단계와 과업, 생애역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등학교까지의 학령기에는 중요한 타인(엄마, 교사 등)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입직하고 나면 직무전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사건에 의해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생애진로분기점에서의 정서적 상황은 분기점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정서적 상황은 연령, 발달단계, 과업, 생애역할 등과 무관하게 각 생애진로분기점마다 부정적 정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부정적 정서에 관한 주제어는 총 185회 진술되었고, 이중 불안과 관련한 주제진술은 총 46회 나타났으며, 전체 18명의 참여자 중 16명은 생애진로분기점에서 불안 정서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불안한 정서와 관련된 주제진술은 취업불안, 진로불안, 생계 불안, 불안의 일상화, 실재 불안, 퇴직불안 등 다양했으며, 무기력이나 우울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참여자 G, K, E, J).

일반적인 수준의 불안감이 있었다라든가 생애진로분기점에서는 그 정도가 심화되었으며(참여자 G, J, P), 불안이 심화되어 불면증을 유발한 사례도 공통으로 보고되었다(참여자 D, M, N).

어떤 불안한 마음? 약간 우울감 같은 것도 있어요. 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막 있진 않고 심한 편은 아니고 약간
우울한 마음도 있어요.<참여자 A>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 잠이 안 와요. 되게 깊이 하는데...
잠생각들이 많아요. 대부분 진로에 대한 생각인데 조금
깊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계속 생각해요. 내가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맞을까? 다른 더 좋은 직업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참여자 D>

저는 지금 벌써 3월부터 지금 멘탈 나갈 것 같은데 어떻

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오히려 좋은 기회인가 아니면 벌써부터 지치는 거 약간 내가 멘탈이 약한 건가 오만가지 생각이 엄청 많이 들면서 이제... 불안한 거죠. <참여자 E>

작년에 4학년 마지막 학기에 휴학했을 때는 정말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불안해서 휴학 했는데 휴학하고 더 심해졌어요...<참여자 G>

어... 빨리 벗어나고 싶다. 진로가 불안하니까... 이 상황에서 일단 벗어나고 싶다? 의사결정이 빨리 돼서 뭔가 좀 확실해지면 좋겠다? 뭔가 불안한 감정이 들었던 거 같고... 잠도 안 오고... <참여자 K>

생각했던 만큼 일이 안되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우울함? 우울함일까요? 진로에 대한 고민? 걱정이 더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일 년 뒤에 이 업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하는 불안감 같은 거...<참여자 M>

3년 지나서 대리 때 고민이 켈 큰 고민이었죠. 제가 느끼는 거는 무지하게 켈죠. 그 당시에는 경험이 없었으니까 누구도 도와주질 못했으니까 내가 이 판단을 잘 못 하면 잘못되지 않을까 지금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렇게라도 뒀든 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려웠어요.<참여자 Q>

불안함 이외에도 상당수의 참여자는 우울감(참여자 A, B, E, G, H, J, M, P), 두려움(참여자 A, D, E, G, H, L, P, Q), 무기력감(참여자 A, C, E, H, J, K, Q) 등 생애진로분기점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4.2.2 생애진로분기점 외부적 상황

4.2.2.1 중요한 타인

생애진로분기점에서의 환경, 사건 등 외부적 상황에 관련된 주제진술은 총 179회였으며, 중요한 타인(부모(엄마), 교사, 동료, 상사, 또래집단 등)의 영향이 98회, 환경적 요인, 진로사건에 관한 것(일 경험, 교육훈련, 직무전환, 취업, 실업 등)이 81회였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시기의 생애진로분기점에서는 중요한 타인 중 부모, 특히 어머니의 영향이 매우 높았다. 어머니가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요인보다 압도적이었고, 어머니의 기대와 계획에 따라 진로목표가 설정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시기의 생애진로분기점에서는 어머니의 기대와 실망감을 민감하게 의식하였고,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어머니의 직업적 신념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유일한 진로정보 제공자도 어머니였고, 일부 참여자는 오직 어머니하고만 제한적으로 소통한다고 진술하였다(참여자 D).

엄마가 늘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요즘 되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잘해서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사회생활 나가서 좀 안정적으로 쉽게 잘할 수 있는 직업, 전문직... 이런 쪽을 원하세요.<참여자 A : 중요한 타인(엄마)의 영향>

엄만 수의사를 원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안 될 거 같아요. 진짜 그건 안 될 거 같아요...(중략) 엄만 정 안되면 미용도 어쩌냐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미용 쪽도 괜찮은 거 같아요...(중략) 엄마는 정말 재수를 하더라도 무조건 보내야 한다는 그런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 인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대학 비는 다 내줄 테니까 대학만 무조건 가라고. <참여자 B : 중요한 타인(엄마)의 영향>

아빠는 집에 잘 안 들어오시고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엄마랑 얘기를 많이 해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얘기를 나누시고 그래서... 아버지도 나의 진로에 대해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저랑 직접 말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아무튼 아버지도 아실 거 같아요. 아빠가 바빠요. 진로에 대해서는 거의 엄마가 알아봐주셔서 엄마한테 주로 들었어요. <참여자 D : 중요한 타인(엄마)의 영향>

중·고등학교 시기 생애진로분기점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타인은 ‘교사’였으며, 진로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 참여자 일부는 교사의 과잉자극이 생애진로분기점의 시작점이었다고 진술하였고(참여자 C), 진로상담에서 교사의 제한적 말 한마디로 선택에 영향을 받았으며(참여자 B), 진로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교사의 진로조언과 직업정보제공이었다고 진술한 사례도 있었다(참여자 D).

선생님은 음... 모델이랑 무용 쪽은 지금 시작하기에 늦었으니까 중간고사 보기 전에 다른 거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분이 좋진 않지만... 어 당연한 거죠. <참여자 B : 중요한 타인(교사)의 영향>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중3이니까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중략) 겨울방학 때 이제 중3 이니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을 딱 먹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엄마가 좋아해요...<참여자 C : 중요한 타인(교사, 엄마)의 영향>

그냥 중3 때 부터는요. 선생님들이랑 상담 하면은요. 중3 때 제가 탁구를 배웠단 말 이에요. 그래서 탁구를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애들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면 어떠냐는 말을 듣고 그런 진로를 생각해보기도 했어요. <참여자 D : 중요한 타인(교사)의 영향>

과외방을 다녀요. 과외방은 고1때부터 다녔었는데 그때 거기 선생님이 약간 진로 같은 것도 정해주고 컨설팅 같은 것도 같이 해주셔서 수업도 하면서 그레가지고 넌 내가 봤을 때 넌 아나운서가 딱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아나운서를 생각해봤거든요... <참여자 E : 중요한 타인(교사)의 영향>

대학 진학 후에는 중요한 타인 중 부모와 교사의 영향이 줄어드는 반면, 그 밖의 중요한 타인(교수, 동료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정체성은 높아지고 타인에 대한 의존은 점차 약해지기 때문이며, 사회적 대인관계가 확장되어 다양한 타인과의 관계망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중요한 타인은 또래집단이며, 세 명의 참여자는 진로결정에 또래집단의 준거 틀을 수용하였고, 자신과 또래집단을 비교하는 등의 사례를 보였다(참여자 M, J, Q).

대학에서는 전공분야 권위자인 지도교수의 조언이 진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참여자 H), 입직 후에는 동료 및 상사의 제안이나 진로정보제공 등이 생애진로분기점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님을 찾아뵙거나 해당실무에 있던 선배들이나 애기를 많이 해봤을 거 같아요.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광고회사는 가지마라 너무 힘들다 이런 애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현실적인 딱 직접적인 일을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접었죠. 그 뭐지 공모전 몇 개 준비하다가 접었죠. <참여자 H : 중요한 타인(교수, 선배)의 영향>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조차도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면 되지 뭐 뭐가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진로에 대해서 미래를 대비해 주셨던 분은 그분이 지금 생각하면 유일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뭐 어찌 됐던가 다 그쪽으로 나갔었으니까요.<참여자 M : 또래집단의 준거에 편승>

근데 나랑 비슷하게 공부한 애도 영어를 공부해서 서울 안에 있는 약간 하위그룹에 있는 외고에 붙었다고 해서 약간 질투 같은 것도 좀 났던 것 같아요. 어, 재도 갔어? 이런 느낌? 나는 내가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안 썼는데... <참여자 J : 또래집단과 비교>

평원 때, 행원 때 왜냐면 그때 S은행이 생겼을 때예요. 그리고 제가 국제부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를 가볼까? 또 친구가 또 그런데 있으면 이런데서 해볼까? <참여자 Q : 또래집단의 준거>

그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책임자시험 대리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또 잘 아시다시피 베이비붐 1세대다보니까 우리끼리 경쟁하는 게 무지하게 심했어요. 그래서 앞에 세대까지는 빨리 진급이 됐는데 우리는 대리시험이 돼도 거기서 정체가 되는... 우리 때부터 항상 살아온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민이 된 거죠. 베이비붐 세대라는 걸 알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될 거냐 내가 옮겨야 될 거냐 이런 고민...<참여자 Q : 또래집단 내 경쟁>

4.2.2.2 환경적 요인과 진로사건

생애진로분기점을 인식하게 되는 외부적 상황에 대해 대학 진학 이전의 학령기인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주로 의도하지 않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생애진로분기점을 인식하고 진로고민을 시작하였다. 선배들의 상급학교 홍보 방문(참여자 J), 진로프로그램에의 참여(참여자 D) 등 의도하지 않은 환경적 요인이 생애진로분기점의 계기가 되었다.

학교에서 학기 중에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게 있어서 대학생 형들 누나들이 와서 진로 관련 뭘 적고 발표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봤었던 거 같아요...<참여자 D : 외부 자극(프로그램)의 영향>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자기네 학교를 선전하러 오잖아요... 그때 여러 학교에 대한 얘기를

를 들었죠. 그러면서 나는 어디를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게 처음 고민이었던 거 같아요...<참여자 J : 외부 자극(고등학교 홍보)의 영향>

한편 대학교 시기의 생애진로분기점은 우연한 교육과정 참여나 활동으로 인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다. 관련하여 진로교과목 수강(참여자 L), 봉사활동(참여자 G) 등의 사례가 진술되었다.

대학 중간에 야학? 같은 거... 애들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쪽으로 진로를 정하면 어떨지 고민도 했었어요...<참여자 G : 계획된 우연 활동(봉사)>

처음 대학에 입학해서는 이 과가 나에게 맞을까 하는 고민을 잠깐 했었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 요즘은 학교에서 교양수업으로 진로나 직업에 대해 많이 하잖아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L : 계획된 우연 활동(교과목 수강)>

취업과 직무전환, 승진 등 직업 관련 사건들로 인해 생애진로분기점을 인식하기도 하였으며(참여자 M, O, P), 실패경험,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 퇴직 등의 영향으로 진로고민이 시작되기도 하였다(참여자 G, K, P, R). 또한 국가적 경제 상황변화나 인구구조 변화 등과 같이 사회경제적 환경이 원인이 되어 생애진로분기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참여자 N, P, Q).

제가 원래는 정보통신 관련 전공이라 엔지니어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면접 볼 때 이사님이 인사 쪽에 TO가 있는데 인사직무를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면 채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때 저는 그냥... 채용만 된다면 너무 좋았으니까... 잘할 수 있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전혀 관련 없는 직무로 취업을 한 거예요...<참여자 M : 취업, 직무전환>

40대 중반 부장에서 약간 임원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쯤에... 그때 뭐 2001년 정도 됐을 때 그때 개인적으로 하도 일에 대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원형탈모 생기고 일에 대한... 그 어떤 책임문제... 그때 종신보험 들었고 원형탈모 생기고... 한때는 집 명의로 와이프 쪽으로 옮겨놓고... 왜냐면 불안하고 하니까... 그때 이민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실제로 미국을 두 번 갔었어요...<참여자 P : 업무강도 강화>

제가 IMF 직후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입사할 곳이 없어요... 다들 취업이 어렵고... 약간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그랬던 거 같아요. 자포자기 상태로 공무원시험을 2년 정도 준비했어요. 진로는 불안했고 시험도 잘 안됐고...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 안 그랬으면 그냥 취업해서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지만...<참여자 N : 사회경제적 환경>

우리 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라서 진로고민이 있을 때 퇴직을 고민할 때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면이 있었죠. 계속 참고 다녀야할지 그만두고 나와야할지...<참여자 Q : 사회경제적 환경>

인턴십에 참여하려고 휴학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정작 인턴십에 참여해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2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왔는데... 어쨌든 휴학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로 다시 복학하게 된 거예요...<참여자 G : 실패(인턴십) 경험>

직업훈련을 받으면 거기서 기술도 가르쳐주고, 직업도 연결시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캐드캠을 배우게 된 거였는데... 한 삼 개월 다녔나? 적성에 너무 안 맞고...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3개월 하고 중도탈락 되었어요... <참여자 K : 실패(교육훈련) 경험>

51세 퇴직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26년 동안 있다가 나왔을 때... 그 회사가 첫 직장이었어요. 그제... 26년 동안 쪽 일해가지고 본부장이라 임원을 하다가...(중략)... 더 일을 못하고 어쨌든 임원생활을 조금하고 나오게 됐죠. 그때 나이가 개인적으로 51세였어요...<참여자 P : 퇴직>

퇴직하고 나니까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바뀌는 거예요... 법인카드, 학자금 지원, 차량지원 등등... 그러면서 아, 하고 실감이 나더라고...<참여자 R : 퇴직>

4.3 반복되는 진로정체성 혼돈

4.3.1 진로고민

생애진로분기점마다 공통적으로 진로정체성 혼돈이 나타났으며, 진로정체성 혼돈의 요인 중 하나로 진로고민에 대한 주제진술이 보고되었다. 생애진로분기점에서는 그 시기와 상관없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등 진로와 관련된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났다. 18명의 연구 참여자는 모두

생애진로분기점에서 진로고민이 증가하고 더 오래 지속된다고 진술하였다. 여러 명의 연구 참여자는 생애진로분기점에서 진로고민과 자기탐색이 심화되어 일정기간 지속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생활에 묻혀 잠시 잊혀졌다가 다음 분기점에서 또 다시 비슷한 고민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E, H, J, N).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뭘 해야 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계속 고민 하는 거죠... 한번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되게 오랫동안 생각해요. 몇 주 갈 때도 있고...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 나에게 맞을까? 다른 더 좋은 직업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참여자 D : 진로고민>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고민했던 거 같아요. 나는 뭐 뭘을 좋아하는데 그걸 잘 하는 건가? (중략) 진로에 대해 생각나고 약간 좀 고민하면은 막상 또 졸리고 졸리면 또 자고 자면 또 내일 아침이라서 학교 가야되고 이렇게 가다 바로 튕턴턴... 이렇게 해가지고 6년 동안 살아왔던 거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참여자 E : 만성적 진로고민>

4년 대학교 다니면서 계속 진로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일단 이렇게 고민이 되도 시험기간이 되면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시험 끝나면 놀고 여유가 생기면 또 고민을 하고 그런 식... <참여자 H : 만성적 진로고민>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진학하기까지 진로결정이 안되어 한편 불안했죠. 한편 불안한데... 그 감정은 이제 어디다가 한 쪽에다 넣어놓고... 한참 밖에 나가 놀고 그러다가도 집에 오면 문득 그런 생각은 들죠. 이 학원일이 별로 난 재미가 없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까? 그러면서 사람인 이런데 들어가 보고... 그건 내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당장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거기에서 나오니까 딱 그 정도에서 고민이 끝나고 미뤄지고 했던 거 같아요. 분명히 학원을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취업을 하든 대학원을 가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그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났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는데 자꾸 용기가 없어지는 거죠. <참여자 J : 만성적 진로고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늘 있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 생각해야 할 게 많으니까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그래서 그냥 일상에 묻히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진로를 생각하면 답답하죠...<참여자 N : 진로고민의 일상화>

4.3.2 본질적 의문

진로정체성 혼돈의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있었다. 12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생애진로분기점에서 자기탐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자기의 성격, 흥미, 역량, 적응력 등에 대한 것이었다(참여자 A, B, C, E, G, I, J, M, N, O, P, Q, R). 일부 참여자는 이 시기에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며,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참여자 P, Q, R).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 주변엔 누가 남아있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식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요... 그동안은 일을 하고 바쁘니까... 그런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게 많이 바뀐 것 같고... 일단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도 달라진 것 같고... 요즘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참여자 R : 자기탐색>

그 동안에는 아빠로... 남편으로... 역할에 충실하며 살았죠... 그렇게 사는 게 또 맞는 거니까... 그런데 퇴직하고 애들도 커서 자립하고 하니깐... 이제는 나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나만 생각한다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참여자 Q : 자기탐색>

잠이 안 오고 고민될 때에는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내 삶에 관한 거 같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죠... 그러다보면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참여자 P : 자기탐색>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직업이 알맞을까? 뭘 좋아하나? 이런 게 좀 고민 되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구요... <참여자 M : 자기탐색>

생애진로분기점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자기탐색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자기 강점을 찾고자 하였고, 자신과 진로를 진지하게 연결하고자 노력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는 각 분기점마다 진로정체성의 혼돈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고 진술하였다.

진로정체성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주로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진로정체성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입시라는 특수한 준거에 의해 대학진학 이후로 모든 과업들이 유도되는 상황에서 자기정체감의 발달이 지연되기도 하며, 성인 이후 노년기의 진로정체성 혼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서유란 외, 2012)[69].

반면 연구 참여자의 주제진술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기는 물론, 40세 전후, 60세 전후에도 진로정체성의 혼돈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정체성 혼돈은 연령과 무관하며, 생애진로분기점의 시기마다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격이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막상 나서는 걸 좋아하다가도 낯을 가리기도 하고, 어떤 게 좋아서 막 하려들다가도 막상 겁내기도 하고...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 B : 자기정체성 혼돈>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비교 하자면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거에 비해서는 저는 아직 약간 불분명 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문과를 왔는데 근데 사회과학 쪽으로 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이게 그 어떤 사람에서 배운 것들 중에서 약간 한 곳으로 집중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과학 쪽은 딱히 상관없긴 한데... 뭘 하든 다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E : 진로혼돈, 우유부단>

월 좋아한다던가 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 정하고 하겠는데... 딱히 그런 것도 없고... 별로 저 욕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보니까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 같아요.<참여자 H : 타인 준거를>

지금도 진로가 혼란스러워요. 이일을 하다보면 옛날에는 청소년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았으나 이제 감흥이 없어질 때가 또 오잖아요. 귀찮아질 때도 오고... 그런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가... 또 내려왔다가... 요즘은 그런 거 같아요. <참여자 J : 직업가치의 혼란>

마케팅 팀에 들어간 친구들과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 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거기 가도 복사하면서 일 배우고, 뭐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차피 광고 기획사에서 하는 거고 그들은 그냥 어느 정도의 그 타이틀만 정하는 수준이잖

아요. 그래서 별거 없구나.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닌데 그림 광고 기획사를 가야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을 다 배워야 되고, 뭐 어떤 영상기법을 배워야 되는데 사실 그건 이미 너무 늦었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무직. 아무거나. 그랬죠. <참여자 O : 이상과 현실의 괴리>

생애진로분기점별로 주제진술을 분석한 결과 진로정체성 혼돈과 관련한 주제어는 총 127회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하면 자기정체성 혼돈 및 진로혼돈이 25회로 많았고, 타인과 비교 및 타인 선행이 22회였으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19회, 자기 존중감 저하가 18회 나타났다. 자기합리화가 15회 등이었다. 그밖에 직업가치 혼란, 우유부단, 이중적 준거, 진로고민과 미결정의 반복, 직업윤리의 갈등 등이 있었다.

생애진로분기점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의 하나인 진로신화도 나타났다(최민서, 2013)[99]. 진로신화는 진로와 직업에 대해 개인이 선택한 비합리적 신념이며, 청소년의 진로신화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진로신화를 검사신화, 완벽성신화, 최고성신화 등 10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김병숙 외, 2007)[40]. 연구 참여자의 주제진술에서 나타난 진로신화는 자신의 흥미가 곧 자신의 직업이 되어야 한다는 일치성 신화(참여자 C), 자격증을 많이 보유하면 더 좋은 직업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정보오류의 신화(참여자 J), 더 완벽한 직업이 있다고 믿는 완벽성 신화(참여자 E) 등이 있었다.

생애진로분기점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체면이었다. 체면은 대체로 60세 전후의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나타났다. 이들은 그 동안의 직업에서 영위하고 유지하던 직책과 지위에서 물러나고 현저히 낮아지는 급여조건을 받아들여야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준비 없는 퇴직을 맞아 일순간 모든 유익이 차단되는 경험을 통해 위신과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체면을 탈피하였을 때 비로소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고 진술하였다(참여자 P, Q, R).

저희 언니가 키가 좀 크거든요. 우리 가족이 원래 좀 큰 편이긴 한데... 언니를 보면 키가 크고 멋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라는 직업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구요... 제가 원래 꾸미고 멋 내고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기가 큰 모델이 멋있어보여서... 그런 쪽으로 되고 싶은 거 같아요. 멋있자나요... <참여자 C : 일치성 진로신화>

우리 아빠를 보면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하시는 데... 아무리 대기업이고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살길 싫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돈을 적당히 벌더라도 여유롭게 일하고 하는 프리랜서 같은 직업이 좋을 것 같고... <참여자 E : 완벽성 진로신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문과에 간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과를 선택했죠. 나중에 많이 후회 했어요... <참여자 G : 정보 오류의 진로신화>

이 분야에 일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A자격증만 있는 사람, B자격증만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생각해서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뭔가 진로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격증을 더 따거예요. 지금은 C자격증도 따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자 J : 정보오류의 진로신화>

앞으로 향후 한 5~6년 정도는 한 65세까지는 충분히 현역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갈등인거는... 그 나이에 일을 한다는 거를 사람들이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자나요. 60이 넘어서까지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참여자 P : 체면>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무지하게 힘든거예요. 판에는 내가 임원 했는데 직접장 했는데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힘들어져요. 저 많이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얼마 못 받지만 부러워하는 사람 많아요. (중략) 지금은 여기서 말단직원이에요. 여기서 나이가 켈 많지 여기 부장은 저보다 한참 후배예요. 근데 높은 사람들이예요. 또 여기 직원들 과장들 차장들은 저보다 한참 높아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되요...<참여자 Q : 체면>

퇴직하면 연락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경력도 있으니 함께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사실 다 믿지는 않았지만 기대는 조금 있었거든... 그런데 연락은 무슨... 그렇다고 내가 먼저 연락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잖아요...<참여자 R : 체면>

4.4 진로발달을 위한 노력과 전략

4.4.1 접근전략

연구 참여자들은 생애진로분기점에서의 혼란과 불안 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재직 중 진로전환을 위해 진로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진로대안에 대한 구상을 다양화하고, 진로범위를 확대하며 직무전환 및 일 경험을 쌓는 시도를 하였다(참여자 A, D, E, G, H, J, K, L, M, P, Q). 또한 어떤 참여자들은 관련분야 전문가(직업상담사 등)나 중요한 타인(교수, 선배)의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의 멘토링을 활용하였다(참여자 C, G, H, J, K, L, M, P, Q). 일부는 지금 수행하는 직무에 더욱 충실하거나 보다 선호하는 직무분야를 찾고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거나(참여자 J, K, L, M, Q), 필요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자기계발을 하며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참여자 G, J, K, L, M).

이러한 노력들은 Higgins의 조절초점이론에 의하면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는 자기조절 즉, 향상조점(promotion focus)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며 이상, 희망, 진보, 성취, 포부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접근전략으로 보았다(Higgins, 1999)[100]. 이에 따라 진로전략에 관한 442회의 주제진술 가운데 접근전략과 관련된 내용은 142회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지냈어요.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그런 거를 하다가 그때 고민했던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진짜 뭔가를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럼 그... 청소년들을 만나잖아요. 애들도 만나고... 그럼 개네들이랑 같이 있는게 너무 좋은데, 그걸 직업이라 연관을 그 당시에는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봉사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죠... <참여자 J : 재직 중 진로전환 추구>

지금 직장이 지역적인 거니까 일단 가까운 데서 시작하고 나중에 이직이 쉽지 않을까? 타 지역으로 라고 생각하고 사실 갔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학위를 따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일정수준의 지식인이 되면 지방에서도 어떤 연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생각 때문에 대학원을 갔어요. <참여자 K : 상급학교 진학>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헤드헌터회사에 있는 우리 선배직원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만약에 일을 하다가 어... 뭐랄까 정상적인 증권 유관기관 이런 회사에 잡을 얻지 못하면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 본인의 컨설턴트업

장에서 선배입장에서 만약에 이 헤드헌팅회사에 이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헤드헌터로. 그런 제의도 해주시니까... 많은 도움을 받았죠. <참여자 P : 멘토링>

새로운 직무를 맡았는데... 코칭도 해야 되고 컨설팅이라는 개념으로... 타이틀은 컨설턴트인데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그닥 없었어요. 옛날에 인력 운영하고 채용하고 이런 때는 짜여진 틀 속에서 그대로 진행했으면 됐겠는데, 이제 그들에게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제가 100세 시대 뭔가를 가이드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 스스로 역량이 안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선배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에서 제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걸 얘기해줬고 저도 그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참여자 M : 멘토링, 상급학교 진학>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충실히 하면 향후에 이직하거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더 유리하게 상황을 전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라든지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게 결국 자신의 실력이 되고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자 K : 직무충실>

지금 계획은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취득할 생각이고 그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업무를 더 충실히 해볼 생각이예요. 뭐든지 직접 경험하고 부딪히면 결국 내 것이 된다고 생각되고... 그래야 나중에 경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여자 L : 직무충실>

제가 은행 다니고 싶은 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전 항상 생각한 게 있어요. 다닐 라면 그래도 만족감을 느껴야 되자나요. 저 혼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전산을 개발을 많이 했어요. 일본지점에 동경지점에 전산개발 자체개발을 할 때도 저는 전산부 직원이 아니지만, 같이 참여를 해서 왜냐면 전산은 논리정연 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제금융에서 자체개발을 했어요. 그때 참여를 해서 같이 만들어 놓게 지금은 또 새로운 걸 로 바꾸고 했지만 그런 것이 무지하게 기쁘고 했죠.<참여자 Q : 직무몰입>

직업훈련과정을 들으면 취업 연계까지 해주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캐드캠을 한 번 배워볼까? 이래서 사실 그 교육과정을 들어갔었어요. 구직기술도 알려주고 취업 앞선도 해준다고 하니까... 정보나 그런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참여자 K : 교육훈련>

교회언니가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교육 얘기를 들으니 돈 안들이고 내

가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놓치면 안 될 기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J : 교육훈련>

이러한 주제진술을 통해 생애진로분기점에서의 접근 전략 요인은 진로범위 확대, 멘토링 활용, 직무충실과 몰입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4.2 회피전략

생애진로분기점에서는 복합적인 부정적 정서와 진로 정체성 혼돈의 영향으로 진로고민을 회피 또는 일단락하거나, 성급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후회하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생애진로분기점에서의 진로전략은 위험을 피하고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보수적 선택을 하게 되는 이른바 타협이 매우 빈번히 나타났다. 참여자 주제진술 분석 결과 진로전략의 주제진술 중 제한과 타협에 관한내용이 91회로 가장 많았다(참여자 A, B, C, D, E, F, G, H, J, K, L, M, N, P, Q). 또한 다수의 참여자들은 지금 당장의 상황만 모면 하거나, 진로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피하려 하였고(참여자 A, C, D, G, H, I, J, K, M, O, P, Q), 사회적 가치와 준거를 수용하고 집단의 가치를 반영한 획일적 진로에 주권 없이 편승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참여자 A, B, D, E, G, H, J, K, L, M, P, Q). 그 밖에 일부 참여자는 원래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수단으로서의 가시적 성과들(자격증, 학점, 영어 등)에 더 매진하는 전략을 선택하기도 하였다(참여자 B, C, E, G, H, J, L, M, Q).

앞서 Higgins는 항상초점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접근전략으로 보았다면, 반대로 고통과 실패를 피하려는 예방초점에 따른 노력을 회피전략이라 하였다(Higgins, 1999)[100]. 참여자의 주제진술을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 대부분에서 생애진로분기점의 시기와 상관없이 회피전략이 나타났고, 진로전략에 관한 전체 주제진술 중, 회피전략에 관한 내용은 총 300회로 보고 되어 접근전략의 142회에 비교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사실 지금 와서는 여기 일을 4년째 하면서는 많이 배웠지만은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걸로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워낙 경쟁이 심하다보니가 있으면 들어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하는 것이지... <참여자 Q : 진로제한과 타협>

교직원들을 보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와 재네들은 정말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거 같지 않은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느끼잖아요. 사고방식, 가치관... 되게 안정적이게 느껴졌어요. 공무원시험은 절대 준비할 마음이 없지만 교직원을 내가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볼직 하겠다. 하지만 그것도 진입장벽이 꽤 높잖아요. 대학교 교직원이 되려면 대기업을 오래 다녀서 경력직으로 오든가 외국계 기업을 다녔던가... 일단 그 수준에 있어야했기 때문에 그건 또 포기를 했죠 <참여자 J : 자기한정과 타협>

기계학과가 제일 물리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전 그게 제일 재밌었는데 선택 할 수 있는 게 화학은 잘못해서 화공은 안 썼고 친구가 화공으로 전과했거든요. 전기랑 정보통신전자공학과라고 있는데 거기랑 여기 기계랑 고민하다가 약간 정통 쪽은 컴퓨터를 좀 많이 하는 거 같고, 전기랑 기계 고민하다가 기계과가 좀 더 취업률이 높아서 기계과로 한 거 같아요...<참여자 H : 현실적 선택과 진로타협>

대기업에 원서를 내고 있긴 한데... 좀 규모가 작더라도 어떨까? 너무 대기업만 바라보고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그럼 대기업을 못 들어가면 그 정도로 돈을 못 벌면 다 굶어죽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건 아니지 않을까? 어차피 대기업 못 들어가면 중소기업에서 비슷비슷한 돈 받으면 좀 내가 그런 좀 행복감 느낄 수 있는, 좀 내가 그런데 가치를 두고 있으면 좀 그런데서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참여자 G : 진로타협>

기계과 공부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저희 학교 기계과는 2학년1학기가 제일 힘들테요. 그래서 제가 딱 전과한게 2학년 1학기부터잖아요. 공부도 공분데 이제 모르는 다 친하게 지내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것도 그걸 적응도 해야 되고 공부도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었어요. 2학년 때. 동아리, 동아리 열심히 했어요. <참여자 H : 현실도피>

4학년 막 학기... 학교를 한 2,3주 다니다가 등록휴학을 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지금이 막 학기인데 그때 휴학을 안 했으면 그때가 막 학기이잖아요. 지금이 26이고 그때가 25인데 제가 그렇게 마음이 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제가 뜨고 4학년 친구들을 보고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이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급한 거예요. 제가 이르고 있으면 안 될 거 같고 뭐라도 해야 될 거 같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 같고 이런 뭔가 어디서 오는지

모를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조금 더 느긋하게 해도 되고 조금 더 경험을 쌓고 내가 도전을 해도 되는 건데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 그렇다고 딱히 여기서 지금 내가 뽐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 급한...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고 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도 내가 쓰고 있고 막 뗐다 하면 내가 막 쓰고 있고 막이래서 휴학을 했어요. <참여자 G : 현실도피>

그래가지고 3개월 하다가 결국은 인제 약정을 한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내가 더 이상 기다려 봐도 특별할 것이 없겠다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택하게 된 거예요. 마인세팅을 다 해놓고 인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깐 와서 하기 전에 여기가 근무조건이 어떤지 뭐 급여 수준이 어떤지 뭐 이런 거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보고... 완전히 바닥에다가 저를 내려다 댔어요. <참여자 P : 차선의 선택, 타협>

이제 졸업할 때가 다가오니까 그때는 공부하라고 해서 학점관리하고 그랬는데... 4학년이 되고 어디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분야를 정하려고 보니 또 너무 많은 거예요... 항공(비행기), 자동차 쪽 등... 다들 자동차분야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자동차분야는 별로라서... 그래도 다들 지원을 하니까 저도 지원하고 있고... 그게 가고 싶진 않는데 남들 쓰니까 나도 써야 될 거 같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그냥 휴학이나 해야겠다... 생각하고 휴학했어요. 휴학기간동안 배낭여행도 가고... 이게 또 대학 때 아니면 장기간 여행은 못한다고... 먼저 취업한 선배들이 얘기해서...<참여자 H : 현실도피>

그때는 취업이 잘되는 시기였고 젊은 사람들한테 상사나 은행이 인기였던 때니까... 그래서 나도 상사에 지원했지...<참여자 P :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

대학에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이미 정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당연히 인문계 진학하는 게 순서였던 거 같아요. 별다른 고민이 없었어요. <참여자 D : 사회문화적 가치에 편승>

직업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수업시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요... 그때 진짜 내가 직업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보다 남들이 인정하는 직업의 모습을 떠올렸던 거 같아요. 그럴듯한 직업? 그런 거요... <참여자 L : 사회문화적 가치 추구>

진로에 대해 고민은 많았지만 학업에 쫓겨 더 깊이 고민

할 거들은 없었던 거 같아요... 성적이 잘 나와야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학업성적을 올리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참여자 D : 학업성과 추구>

생애진로분기점에서 회피전략의 주요 주제진술은 현실도피, 타협, 진로이외의 성과추구, 사회문화적 가치에 편승 등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5.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생애진로분기점을 진로전환의 기점으로 보고, 생애발달단계에 따라 그 시기와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생애진로분기점에서의 진로정체성과 진로전략에 대해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18명으로 이들이 면담을 통해 생애진로분기점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주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진로분기점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났으며, 중학교 3학년에서 60세 이후까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최초의 생애진로분기점을 경험하였고, 두 번째 생애진로분기점은 고등학교 3학년, 세 번째는 대학졸업을 앞둔 시기부터 졸업 후 취업 전까지였으며, 네 번째 생애진로분기점은 직장생활 3년 차 이내였으며 취업 후 3개월 이내, 직장 1년 차까지, 직장 3년까지 등 여러 차례 반복적인 경우도 일부 사례에서 보고되었다. 다섯 번째 생애진로분기점은 40대 초중반, 여섯 번째는 60세 전후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일부 참여자는 65세, 70세의 진로분기점을 예상하였고, 예외적인 사례에서 40세 전후 연령의 참여자 일부는 70세, 100세까지의 생애진로분기점을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진로분기점은 40세 이상 연구 참여자를 중심으로 주제진술을 분석한 결과 적게는 2회, 많게는 6회까지 반복적으로 생애진로분기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생애 동안에 평균적으로 5회 이상 생애진로분기점을 경험했거나 향후 경험할 것이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둘째, 생애진로분기점에서의 외적 상황은 중요한 타인의 영향(부모, 교사, 상사, 동료, 또래집단 등)에 의한 것, 외적 자극과 환경 및 진로사건에 관한 내용들(일 경험, 교육훈련, 직무전환, 취업·실업 등)이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기의 중요한 타인은 부모, 교사, 또래집단의 영

향이 높았고, 부모(엄마)와 교사의 영향은 압도적이었다. 대학진학 이후에는 부모, 교사의 영향이 점점 감소하였는데, 자기개념이 성숙함에 따라 타인에게 덜 의존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망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교수나 동료 등 부모이외의 타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진로분기점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자극과 환경 및 진로사건은 고등학교 이전의 학령기에서는 대부분 비계획적인 외부 자극(고등학교 홍보방문, 학교의 진로프로그램 참여 등)이 생애진로분기점의 계기가 되었다. 대학 이후에는 진로교과목 수강, 봉사활동, 승진과 관련한 사건, 취업 및 직무의 전환 등의 사건이 생애진로분기점의 계기가 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 퇴직, 실패경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유발된 사건 등이 생애진로분기점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생애진로분기점에서의 정서적 상황은 각 분기점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발달단계, 과업, 연령, 역할 등과 무관하게 생애진로분기점마다 부정적 정서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생애진로분기점에서의 정서적 상황으로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불안에 대한 주제진술은 취업, 생계, 진로, 실패, 노후, 퇴직 등으로 나타났고, 불안이 심화되고 일상화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또한 불안과 함께 우울, 두려움이나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복합적으로 경험한 참여자도 많았다. 대다수의 참여자는 생애진로분기점에서 불안의 정도가 심화되었으며, 불면증을 경험할 정도의 심각한 불안을 경험했다고 진술하였다.

넷째, 생애진로분기점의 각 시기마다 진로정체성 혼돈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진로전환의 기점에서 자기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되돌아보며 스스로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 또한 생애진로분기점마다 공통적으로 자기탐색, 진로고민, 진로정체성의 혼돈이 반복되었다. 생애진로분기점의 시기에 놓인 사람들은 과거 경험을 돌아보며 현재의 자신과 진로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구상하는 등 자신과 진로를 연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진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과 성찰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많은 경우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다른 이들의 준거틀로 스스로를 평가하여 자신감을 잃기도 한다. 또한 부정적 결과를 변명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엉뚱한데서 찾기도 하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하고 이중적 준거를 통해 이를 분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진술

들은 대체로 진로정체성과 관련이 높으며, 혼돈과 혼란, 갈등과 모순 등 진로정체성 혼돈에 관한 주제기술이 생애진로분기점마다 공통적·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생애진로분기점의 진로전략은 접근전략과 회피전략 등 두 가지로 나타났다. 진로목표에 가까이 다다르기 위한 접근전략으로 멘토링의 활용, 진로범위의 확대, 관련 교육 및 훈련, 직무충실과 몰입 등이 있었다. 궁극적으로 진로목표와 상반없는 행동을 추구하는 회피전략에는 문제의 회피와 현실도피, 진로제한과 타협, 사회문화적 가치 수용, 진로 외의 성과에 매진하는 등의 전략들로 진술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제시하고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전환의 기점인 생애진로분기점은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처음 인식되어 60세 이후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일어나며, 수차례 반복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중3, 고3, 대학졸업~취업 전, 직장 3년 이내, 40세 전후, 60세 전후를 생애진로분기점이라 진술하였다. 반복해서 생애진로분기점을 경험한 횟수는 2~6회 정도였고, 평균적으로는 5회였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생애진로분기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현재의 장·중년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진로를 경험한 세대로써 진로전환과 위기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으므로 세대별로 차별적인 직업상담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생애진로분기점별 외부적 상황은 생애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정서적 상황은 별로 차이가 없었다. 즉, 정서적 상황(불안, 우울, 무기력, 부담감 등)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경험이 대부분이며, 생애진로분기점마다 공통적·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불안을 호소하였으며 그 내용(진학, 취업, 진로, 미래, 실패, 생계 관련 불안)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강도 높은 불안을 경험하였다. Adler(1992), Horney(1945), Sullivan(1953)[101-103]은 불안에 대해 자기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생긴 두려움을 내포한 정서반응이라 하였는데, 즉, 진로분기점에서의 공통된 불안은 각 분기점의 상황이 위협적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Adler, 1992, Horney, 1945, Sullivan, 1953)[101-103]. 그 동안 직업상담에서 장기실업자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직업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각 생애진로분기점마다 반복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불안을 경험하는 대상자로 직업심리치료의 필요성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진로정체성 혼돈은 생애진로분기점마다 반복되었다. 그 동안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국한하여 인식되었던 진로정체성의 혼돈이 직장생활 초기, 40세 전후, 60세 전후 등 전 생애동안에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진로정체성은 진로위기나 진로전환의 기점에 직면하게 되면 혼돈이 반복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의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진로정체성에 대해 청소년 또는 대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진로정체성 측정(장지선, 2003; 서유란, 이상희, 2012)[104,69], 진로정체성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유영미, 문승태, 2005; 이재창, 최정인, 2006; 조명실, 최경숙, 2007; 조은주, 2001; 박주영, 2003)[105-109] 등 다양한 연구가 있으나, 성인 이후의 진로정체성과 진로정체성 혼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장·중년층도 생애진로분기점에서 진로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기평가 및 진로계획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장·중년의 진로정체성에 관한 후속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생애진로분기점에서 그 시기의 불안과 혼돈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인 진로전략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진로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접근전략(직무몰입, 진로확장, 멘토링, 교육훈련 등)과 진로목표 달성과 본질적으로 상관없이 다른 행동을 취하는 회피전략(현실도피, 진로타협, 성과위주, 사회문화적 가치 추구 등)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인 장·중년층은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있다가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경제상황을 짧은 기간 동안 극단적으로 경험하였고, 그 후로는 줄곧 실업이 만성화된 노동시장의 환경에 놓였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주도적으로 진로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여 성과를 얻어낼 기회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직업상담 장면에서는 생애진로의 관점에서 진로전략을 발굴해야 할 것이며, 각 생애진로분기점별 대상들에게 더 다양한 진로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생애진로분기점에서는 학습되어진 무기력이 보고되었다. 생애진로분기점을 반복적하여 경험함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과 진로정체성 혼란을 거듭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협 또는 타인의 준거에 편승하는 전략 등으로 생애진로분기점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게

되며, 그 결과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을 갖게 된다. 이후에도 이들은 분기점마다 비슷한 경험을 반복하면서 무기력이 일상화 된다. 그러므로 직업상담 현장에서는 생애진로분기점별 대상들의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 연구는 생애진로분기점별 진로 상황과 진로정체성 혼돈 및 진로전략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각 분기점에 있는 대상들을 중심으로 면담하거나 일부 연령대에 있는 대상에게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여 진술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함에 따라 생애단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방법상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한 개인이 생애진로발달단계 동안에 어떤 경험과 맥락으로 생애진로분기점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반복되는지에 대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KBS, The Great Wall, <http://www.kbs.co.kr/1tv/sisa/goodinsight/behind/view.html?cid=70000000000987>, 2017.04.
- [2] International Statistical Yearbook, Life expectancy, pp. 78-85,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6.
- [3] Future population estimates,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7.
- [4] J. Y. Chang, Labor Market and Employment Policies in the Age of Aging, p. 7, <https://www.kli.re.kr>, 2003.
- [5] Parsons, F. "Houghton Mifflin", *Choosing a vocation*. 1909.
- [6] Levinson, D. J.,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Ballantine, 1978.
- [7] B. S. Kim, "80,000 hours after retirement", pp. 16~19, Chosun Education, 2012.
- [8] S. J. Lee, "Abandoned track: homeless person, life history, inflection point",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2013, no. 12, pp. 365-388, 2013.
- [9] N. H. Shin, "The Deep Reading on the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Oral Life History: on the Focusing the Important Life Accidents and the Positions of the Social Conflict Division", *Korean Cultural Society*, vol. 50, no. 0, pp. 153-182, 2015.
- [10] M. J. Kwak, "A Developmental Truning Point according to Psychosocial Development and Separation-Individuation Proces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2005.
- [11] Y. S. Heo., J. Y. Kim., & J. Y. Choi., "A Explo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Growth Pattern, and Factors that Are Critical at the Inflection Point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The Korea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vol. 10, no. 1, pp. 1-30, 2013.
- [12] Holland, J. L.,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Englewood Clifs, NJ: Prentice-Hall, 1985.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5\)90044-2](https://doi.org/10.1016/0001-8791(85)90044-2)
- [13] Dawis, T. R., & Lofquist, L. H., "A psychological theory of work adjustmen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 [14] Gysbers, N. C., Heppner, M. J., & Jhonston, J. A. "Career Counseling: Process, Issues, and Techniques", Allyn & Bacon, a Pearson Education INC. 1998.
- [15] Ginzberg, E., Ginsberg, S., W, Axelad, S., & Herma, J. L,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
- [16] Super, D. E.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Brown", D., & Brooks, L(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pp197- 26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90.
- [17] Buehler, C., Der Menschliche Lebenslauf als Psychologisches problem(The human life course as a psychological subject). Leipzig, Germany: Hirzel, 1933.
- [18] Buehler, C., From birth to maturity. London: Kegan and Paul, 1935.
- [19] H. Y. Yi., "International Dispositive of Human Rights and the Narrative of Tragedy-Focusing on a Case study of North Korean Refugees in Germany",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vol. 2016, no. 3, pp. 191-228, 2016.
- [20] H. Y. Jun, "8 Color of 8 Persons Career Transition Narrative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3.
- [21] Super, D. E.,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6, no. 3, pp. 282-298, 1980.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0\)90056-1](https://doi.org/10.1016/0001-8791(80)90056-1)
- [22] Schlossberg, N. K. "A model for analyzing human adaptation to transi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9, pp. 2-18. 1981. DOI: <https://doi.org/10.1177/001100008100900202>
- [23] K. Y, Jang, B. W. Kim, "The Korean Validation Study of the Transition Guide Questionnaire Scal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1, 399-415, 2009. DOI: <https://doi.org/10.15703/kjc.10.1.200903.399>
- [24] Dirkx, J., Mezirow, J., Cranton, P., "Musing and reflections on the meaning, context, and process of transformative learning: A dialogue between John M. Dirkx and Jack Mezirow",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vol. 492, pp. 123-139, 2006. DOI: <https://doi.org/10.1177/1541344606287503>
- [25] Bejian, D. V., Salomone, P. R., "Understanding Midlife Renewal: Implications for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44, pp. 52-63, 1995. DOI: <https://doi.org/10.1002/j.2161-0045.1995.tb00528.x>
- [26] Hopson, B., Adams, J. D. "Toward an understanding of transition: Defining some boundaries of transition. In j. Adams, J. Hayes, B. Hopson(Eds.)", *Transition: Understanding and managing personal change*. Montclair, NJ: Allenheld & Osmun. 1977.

- [27] Schlossberg, N. K. "A model for analyzing human adaptation to transi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9, pp. 2-18, 1981.
DOI: <https://doi.org/10.1177/001100008100900202>
- [28] Schlossberg, N. K., "Counseling Adults in Transition", New York: Springer Publisher Company, 1984.
- [29] Anderson, M. L., Goodman, J. Schlossberg, N. K. Counseling Adults in Transition: Linking Schlossberg's Theory with Practice in A Diverse World(4th ed.).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LLC. 2012.
- [30] Erikson, E. H.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68.
- [31] Marcia, J. E. "Identity in adolescence. In Adelson(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1980.
- [32] Tiedman, D. V. , O'Hara, R. P.,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1963.
- [33] Holland, J. L., Gottfredson, D. C., Power, P. G., "Some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9, no. 6, pp. 1191-1200, 1980.
DOI: <https://doi.org/10.1037/h0077731>
- [34] Meeus, W., Studies on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n overview of research and some new dat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5, no. 5, pp. 569-598, 1996.
DOI: <https://doi.org/10.1007/BF01537355>
- [35] Vondracek, F. "The Construct of Identity and Its Use in Career Theory and Research",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41, no. 2, pp. 130-144. 1992.
DOI: <https://doi.org/10.1002/j.2161-0045.1992.tb00365.x>
- [36] Meijers, F., "The development of a career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vol. 20, pp. 191-207, 1998.
DOI: <https://doi.org/10.1023/A:1005399417256>
- [37] Higgins, E. T.,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vol. 52, pp. 1280 - 1300, 1997.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52.12.1280>
- [38] J. W. Lee, B. R. Song, J. Y. Lee, J. H. Lee, K. H. Lee, "A Concept Mapping Study on Career Adaptability Tasks across the Adult Life Cyc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6(4), pp. 1073-1108, 2014.
- [39] M. O. Ahn., "Life-cycle Specific Comprehensive Women's Health and Maternal Child Health",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vol. 18, no. 1, pp. 1-12. 2014.
DOI: <https://doi.org/10.21896/jksmch.2014.18.1.1>
- [40] B. S. Kim, "Korean Vocational Development History, Sigmappress", Occupational Psychology, p. 696, 2007.
- [41] C. G. Kim, "Career counseling & career education", Seoul: Dongmunsa, 2000.
- [42] B. R. Song, J. W. Lee, H. S. Choi, J. G. Heo, K. H. Lee, "Adult's Lifelong Career Satisfaction ; the Meta-analysis study on the Social Cognitive Career Variables by Life Stage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5, no. 5, pp. 1791-1810, 2014.
- [43] N. H. Kim, "A Study on the Career Transition of Workers in their Middle and Old Age", The Graduate School of Glob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Ghung-Ang, 2012.
- [44] N. R. Kim,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Job Search Behavior of the Middle-Aged Job Seeker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Unlearning",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2015.
- [45] S. W. Yang, "Psychological Experience through Career Transition in to a Pofessional Athlete: Single subject study", 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2015.
- [46] D. S. Choi,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and Self-determi nation on Career Transition of Discharged Soldier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4.
- [47] G. H. Lim, "Effects of Employees'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n Vocation adjustment and Vocation transi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al Welfare Kyonggi University, 2015.
- [48] S. H. Ju, "Analysis on Career-Interrupted Woman's Experience", Graduate School Kyungsung University, 2016.
- [49] S. H. Song, "An analysis of success factors for career transition and career adaptation of highly-educated women with discontinued career", Department of Vocation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2016.
- [50] S. K. Hwang, "Indices of Labor Force Utilization : An Application to a Study on Female Idle Labor Force",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vol. 3, no. 4, pp. 1-24, 2003.
- [51] M. Y. Lee, "Factors Impacting on the Re-employment Need of the Highly-educated Career Interrupted Women", Graduate School Nambu University, 2002.
- [52] S. Y. Jang, "The Qualitative Research on the Reentry Process of Highly-educated Housewives to their Job Market", *The Women's Studies*, vol. 74, no. 1, pp. 79~104, 2008.
- [53] Waterman, A. S.,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8, no. 3, 341-358, 1982.
DOI: <https://doi.org/10.1037/0012-1649.18.3.341>
- [54] H. W. Han, K. S. Moon, "The mediating role of self-regulated learn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2, no. 4, pp. 25-42, 2014.
- [55] S. H. Kim, "The study on the impact of social work practicum on career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6.
- [56] E. J. Jo, "Analysis of the Career Barrier Factors affecting to Career Identity",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1.
- [57] S. I. Lee, "The Relationships Among Ego Identity,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of High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Hannam University, 2000.
- [58] E. S. Seo, K. A. Jung,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Satisfaction with Major, Adjusting to College Life and

- Self-Esteem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ptometry and Optic Science at a University on Academic Achievement”, *The Korean Society Of Vision Science*. vol. 17, no. 3, pp. 213-225, 2015.
- [59] Halamandaris, K. F., Power, K. G., “Individual differences, dysfunctional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A study of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of home students”,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vol. 22, no. 1, pp. 93-104, 1997.
DOI: [https://doi.org/10.1016/S0191-8869\(96\)00175-4](https://doi.org/10.1016/S0191-8869(96)00175-4)
- [60] Galles, J. A., Lenz, J. G., “Relationships among career thoughts, vocational identity, and calling: Implications for pract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61, no. 3, pp. 240-248, 2013.
DOI: <https://doi.org/10.1002/j.2161-0045.2013.00052.x>
- [61] K. S. Lee, “There 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 The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9.
- [62] J. W. Han, “Social Support and Career Identity Influ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vol. 22, no. 2, pp. 117-140, 2013.
- [63] H. R.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Career Identity and Career Adaptability”,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2013.
- [64] J. S. Jang,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Identity Statues, Parental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f College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3.
- [65] T. S. Kim, “A Validation Study of the Vocational Identity (VI) Scale for the College Students in Korea”,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 [66] Holland, J. L. ,Holland, J. E.,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24, pp. 404-414, 1977.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24.5.404>
- [67] Melgosa, J.,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occupational identity scale”, *Journal of Adolescence*, vol. 10, pp. 385-395 1987.
DOI: [https://doi.org/10.1016/S0140-1971\(87\)80019-2](https://doi.org/10.1016/S0140-1971(87)80019-2)
- [68] J. H. Lee,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e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vol. 13, no. 3, pp. 133-154, 2013.
- [69] Y. R. Seo, S. H. Lee, “Comparison between self-identity and career-identity on career attitude matur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 2, pp. 525-542, 2012.
DOI: <https://doi.org/10.15703/kjc.13.2.201204.525>
- [70] W. R. Kim, Y. H. Park, J. S. Kim, “A Structural Model of the Relationships Among Basic Psychological Needs, Ego Identity, and Career 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8, no. 2, pp. 333-352, 2014.
- [71] Y. S. Kang,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Calling on Career Decis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2015.
- [72] Y. H. Kim, K. H. Kim, “The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etween Ego-identity Achieved and Foreclosed College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19, no. 1, pp. 169-182, 2011.
- [73] J. H. Yang,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 [74] M. J. Kim,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2010.
- [75] H. R. Lee, S. M. Kim, M. S. Cheun, S. K. Choi, “A Structural Analysis of Career Stress, Career Barriers,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21, no. 4, pp. 59-80, 2008.
- [76] J. E. Yoo, “Development of Career Anxiety Reduction Program for Adolescents”,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2003.
- [77] D. H.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Task-approach Skills, Career Identity, Career Barriers, and Career Matur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 2, pp. 855-875, 2012.
DOI: <https://doi.org/10.15703/kjc.13.2.201204.855>
- [78] Y. J. Gong, “A Study on College Students with Potential Adjustment Problems: An Application of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7, no. 2, pp. 417-432, 2006.
- [79] Savickas, M. L, Identity in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7, no. 3, 329-337. 1985.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5\)90040-5](https://doi.org/10.1016/0001-8791(85)90040-5)
- [80] H. J.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Employ ability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 on Employment Strategies”,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2014.
- [81] J. S. Lee,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on the Employment Strateg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2012.
- [82] M. N. Jeon, “The Analyses on Learning Strategy and Performance of University Students with High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7, no. 4, pp. 1-28, 2003.
- [83] M. H. Yang,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model”,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 [84] M. K. Jung,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Tes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16, no. 1, pp. 253-272, 2003.
- [85] Zimmerman, B., “Models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B. J. Zimmerman & D. H. Schunk(Ed.)”,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Y: Springer-Verlag. 1989.

- DOI: <https://doi.org/10.1007/978-1-4612-3618-4>
- [86] Zimmerman, B. J., Martinez-Pons, M.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2, pp. 51-59. 1990.
DOI: <https://doi.org/10.1037/0022-0663.82.1.51>
- [87] M. J. Sim, H. S. Oh, "Influence of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6, pp. 328-337, 2012.
- [88] K. S. Kim,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of Learning Flow in Relations of Adolescents' Learning Motiv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ounseling*, Seoul Venture University, 2014.
- [89] Y. E. Lee, "Effects of The Collective 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n Learning Satisfaction among Study-Group Participating Public Officials",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2011.
- [90] K. B. Park, H. M. Kw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Dispositi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leading Learning Trait of Gifted and General Students",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vol. 21, no. 1, pp. 1-17, 2011.
- [91] S. T. Moon, "The relationships among Human Relationship, Personal Initiative in learning and Vocational Adaptability o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areer Education*. vol. 25, no. 3, pp. 39-60, 2012.
- [92] J. Y.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Creativity, Personal Relationship in regards to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Graduate School Kwandong University, 2013.
- [93] E. Y. Jang,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elf-differenti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2012.
- [94] S. R. Kim, J. C. Le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 Career Matur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9, no. 2, pp. 393-407, 2007.
- [95] S. Y.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nd Effect amo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the College Students",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2007.
- [96] Robitschek, C., Cook, S. W. "The influence of personal growth initiative and coping styles on career exploration and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54, pp. 127-141. 1999.
DOI: <https://doi.org/10.1006/jvbe.1998.1650>
- [97] Harren, V. A.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4, pp. 119-133. 1979.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79\)90065-4](https://doi.org/10.1016/0001-8791(79)90065-4)
- [98] Miles, M. B., Huberman, A. M.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4.
- [99] M. S. Choi, "Mediating Effects Career Worries have on University Students' Vocational Decision Status, Depending on the Students' Holland Preference Typ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2013.
- [100] Higgins, E. T. (). "Promotion and prevention: Regulatory focus as a motivational principle. In M. E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vol. 30, pp. 1-46. 1999.
- [101] S. Adler, "The birth of a standard",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vol. 43, no. 8, pp. 556, 1992.
- [102] Horney, K., "Our Inner Conflicts", New York: Norton. 1945.
- [103] Sullivan, H. S.,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1953.
- [104] J. S. Jang,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identity statues, parental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f college students",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3.
- [105] Y. M. Yoo, S. T. "Moon,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Self-Identity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vol. 18, no. 2, pp. 1-19. 2005.
- [106] J. C. Lee, J. I. Choi,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go-Identity and Disfunctional Career Thought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vol. 19, no. 1, pp. 111-125. 2006.
- [107] M. S. Cho, K. S. Choi,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8, no. 3, pp. 1085-1099, 2007.
DOI: <https://doi.org/10.15703/kjc.8.3.200709.1085>
- [108] E. J. Jo, "Analysis of the Career Barrier Factors affecting to Career Identity",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1.
- [109] J. Y. Park, "The Influences of dysfunctional family structure on career identity and vocational preference", Graduate School Busan University, 2003.
- [110] Strauss, Anselm. L. ,Corbin, J.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Sage. 1990. (dt. 1996: Grundlagen qualitativer Sozialforschung. Weinheim: Beltz, Psychologie Verlags Union).

손 민 정(Min-Jeong Son)

[정회원]



- 2005년 8월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직업학 석사
- 2017년 8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 박사
- 2000년 9월 ~ 2009년 7월 : 고용노동부직업상담원 및 직업상담서기보
- 2013년 3월 ~ 2014년 12월 : 강남대학교취업정보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

- 2015년 4월 ~ 2016년 10월 : (사)한국직업상담협회 사무국장
- 2016년 10월 ~ 현재 :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팀장

<관심분야>

진로교육, 직업심리, 직업상담, 직업정보

조 인 수(In-Soo Cho)

[정회원]



- 2011년 2월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 석사)
- 2015년 8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수료
- 1985년 9월 ~ 현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행정원

<관심분야>

직업, 진로, 생애설계준비, 북한이탈주민

최 정 은(Jeong-Eun Choi)

[정회원]



- 2006년 8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PR전공 석사
- 2013년 8월: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00년 2월 ~ 2010년 3월 : 한국YWCA연합회 팀장
- 2014년 11월 ~ 현재 : 공공선연구소대표 늘기뽀협동조합 사무총장

- 2013년 6월~ 현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직역량 집단프로그램 전문 강사 등

<관심분야>

직업 · 진로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여성 등